

# 근대 영국의 기독교와 개혁주의 정치문화

박우룡

(Park, Woo-Ryong)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강사

2-401-9801-04

pp.73-93

## I. 머리말

가장 먼저 산업 자본주의 체제로 접어든 영국이 심각한 사회적 동요를 겪지 않고도 복지국가로 발전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근대 영국의 체제 안정과 개혁적 정치문화가 자리 잡은 우선적 요인으로 입헌주의적 전통과 경제 발전을 들고 있다. 즉,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 왕실의 온건한 태도, 귀족 계급의 체제발전의 기여 등을 정치적 안정의 주요 요인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의회주도의 정치구도와 고전적 자유주의 체제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과 전통 귀족이 정치를 거의 독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영국 자본주의의 경제발전을 요인으로 삼는 견해 역시, 그 실체는 소수 부유층에만 부가 편중되고, 대다수 하층민은 여전히 빈곤상태에 머물고 있었다는 반론 앞에서 설득력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의 두 요인만으로는, 19세기 중반까지 대다수 영국인들의 정치적 권리 행사가 제한된데 따른 불만과 분배정의의 실패에 따른 소외 계층의 박탈감을 어떻게 달랠었고, 그에 따른 혁명적 분위기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었던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근대 영국의 체제안정을 유지하면서 개혁주의적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든 또 다른 요인을 찾게 된다. 이 점에서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영국의 그리스도교의 역할이다. 종교는 근대 영국의 역사를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이다.<sup>1)</sup> 산업화의 첫 세기부터 영국의 그리스도교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영국의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대중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면서, 어떤 방법으로 영국의 개혁주의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이 시대에 종교가 어떠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교훈을 얻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회(The Church of England)는 체제순응의 종교였다.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국교회는 경쟁하는 교회세력이 거의 없는 가운데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와 일체성을 띠고 있었다. 국가는 국교회를 보호하고 중요한 특권들을 부여하였다. 군주는 왕위계승법에 의해 대관식에서 국교회의 일원으로서 국교회를 수호하고 그 특권적 지위를 존중할 것을 선서하였다. 당시 국민들도 국교회를 믿는 일은 바로 종교적 의무이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

하는 것이었다. 국교회 성직자는 소득원으로 수입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비국교도에 대한 관직취임 금지는 중앙·지방 정부와 육·해군, 대학 등에서 국교도의 독점권을 사실상 보장해 주었다.

'국가교회'로서 국교회는 국가의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당연히 국가의 통제도 받았다.<sup>2)</sup> 교회는 국가에 이바지하고 그 권위를 떠받들어야 했다. 왕실은 모든 주교들(상원의원을 겸함)과 교구 목사의 1/10을 임명했다. 의회는 국교회의 교리와 운영에 대한 최종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교구에는 배치된 교육받은 성직자들은 종교적인 역할만이 아니라, 교인들을 교육하고 개화시켜 사회 질서에 순응하고 국가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의무를 함께 실행해야만 했다.

국교회 성직자들은 교회일보다는 바깥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주교들이 상원에서 정치 활동을 통한 신분상승을 꾀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그의 교구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많았다 또 귀족계급이 주도하는 후원제도는 교회를 경직시켰고, 내부적 개혁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성직자들의 소득의 큰 불균형이 문제였다.<sup>3)</sup> 이러한 제반 여건 때문에 국교회는 성직취임, 부재성직자, 출세 제일주의가 지배적 경향이 되었다. 그 결과, 1830년대에 성직자가 주재한 교구는 전체교구의 40%에 불과했을 정도로 교회의 취약성은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성직자들의 소득과 지위가 향상되면서 점차 해소되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의 성직 지망율이 높아지고, 의회의 엔클로저를 통해 교구의 소득이 증대하고, 새로운 후견제도가 생겨남으로써 빈곤한 성직자 상은 옛날 얘기가 되었다. 이제 상당수 성직자들은 사회적 빈부격차가 심화되가는 상황에서 유산계급 엘리트가 되어갔던 것이다. 국교회 성직자들의 신분상승이 절정에 달한 것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영국의 교회와 국가가 더욱 강력하게 결속을 다진 1790-1830년 사이의 일이었다.

국교회 성직자들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유한계층화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교적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 배부른 성직자들의 종교적인 열정이 사라진 공허한 설교는 대중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었다.<sup>4)</sup> 국교회의 신앙에는 그나마 대중의 마음을 끌만한 신비적이거나 정서적인 요소들조차도 없었다. 조직도 역시 현상유지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더 비중을 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성직자가 필요한 신흥 도시들에 성직자를 재배치 할 만한 여력도 없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으로 도시나 시골이나 할 것 없어 많은 신자들이 국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비(非)국교도들이 국교회의 종교적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기존 비국교도 운동들(Old Dissent- 독립교회파 Independents, 침례파 Baptists, 장로파 Presbyterians, 퀘이커교 Quakers 등)은 17세기의 전성기를 지나 18세기 중엽에 이르게 되면서 그 세력이 약화되어 있는 실정이었다.<sup>5)</sup> 비국교도의 신도수는 영국과 웨일즈 전체인구의 약 6퍼센트에 불과한 미미한 세력이 었기 때문이다.

### III. 감리교 운동

감리교 운동(The Methodist Movement)은 10세기에 본격화된 신앙의 대중화 운동이다. 국교회가 채워주지 못한 수많은 보통 신도들의 "영적 공허감"<sup>6)</sup>을 매우 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처음에 복음주의 운동(The Evangelical Movement)의 한

흐름으로 출현하였다. 초기 복음주의가 출현하게 된 동기는 당시 교회의 부패상과 쇠약함, 그리고 대중의 신앙의 약화가 가져다 준 충격 때문이었다. 당시 성직자의 나태함, 노동민들의 미신적 태도, 특히, 중 간계급과 상류계류 사람들의 방종과 허울뿐인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그러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간단한 것이었다. 그들은 의식(儀流)이 아닌 신과 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감리교 설교사들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으며, 교회의 의식(儀式)과 성찬(聖餐)보다는 교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믿음에 의한 구원, 예정설의 부정, 즉각적인 구원의 화신, 정화(淨化)를 강조하는 감리교의 메시지는 강력하면서도 민주적인 것이었다. 감 리교는 선택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장래의 구원을 약속했던 것이다. 감리교 운동을 통해 그리스도교는 보통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교적 의미로 다가왔다.

영국에서 복음주의 운동은 처음 국교회 내부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웨슬리(John Wesley, 1703-91)의 감리교 운동이었다. 감리교 운동은 복 음주의적 열정을 통해 민중들을 참다운 신앙인으로 개종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종교운동이었다. 그러나 그 출발은 국교회에서 했지만 감리교운동은 결국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가장 큰 경쟁종파가 되었다. 그리고 복음주의는 곧 구(舊)비국교도와 스코틀랜드의 개신교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물론 오늘날까지도 복음주의는 국교회의 소수파에게도 영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말이다. 국교회의 복음주의가 중상류층에게서만 지지를 받았던 반면, 감 리교 운동은 대중의 전례 없는 호응을 받은 새로운 종교운동이었다.<sup>7)</sup> 향후 영국에서 개신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복음주의적 그리스도교를 의미하게 되었다.

초기 감리교 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웨슬리는 국교회의 교구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들끼리의 기도와 성경공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정작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 성직자 생활과 미국 조 지아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웨슬리는 목사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능력에 한 계를 느꼈다. 1738년 실의에 빠져서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 그의 삶에 중대한 전 환점이 찾아 왔다. 그해 5월, 그는 새로운 영적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굳 은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의 새로운 목표를 '믿음에 의한 개인의 구원'이라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었다. 1739년부터 복 음주의적 설교에 헌신하는 그의 오랜 여정이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옥외(屋外) 설교 의 방법을 도입했던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와 웨슬리의 동생인 찰 스 웨슬리가 그의 운동에 합류하였다. 그들은 영국 전역을 순회하며 전도하기 시작하였다. 웨슬리는 50년 동안 4만번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청중들을 열광시키고 깊은 신앙심을 갖도록 인도하였다.

새로운 영적 변화 - '큰 변화(Big Chance)'-로 인도하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이었다. 집회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청중의 감정에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설교사들의 즉흥적인 설교에 자발으로 참여한 청중들은 종교적 변화(conversion)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자신들의 죄를 씻 기 위해 영적 투쟁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오고, 또 한 편에서는 '자유를 찾은'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감격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보수적 인 국교도들은 이러한 감리교의 집회가 종교적 집회라고 할 수 없는, 질서와 예 절을 벗어나 '단순한 동물적 격정'만을 부채질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감리교도들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열정적 태도'는 국교도 교회가 억누르고 무시해왔던 영혼의 폭발을 증거하는 몸짓이었다.

감리교도들 가운데 가장 열성적이고 복음주의적 경향을 띤 무리는 원래 웨슬 리파에 속한 '원시 감리교도'(Primitive Methodists)였다. 이 초기 감리교 운동은 광부들과 농장노동자들 사이에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구세군(Salvation Army)이 전에 일어난 가장 대중적인 지지도가 높은 종교운동이 되었다. 초기 감리교 운동은 특히 여성들에게서 크게 호응을 받았는데, 그들은 반근으로부터 가정의 붕괴를 막고, 가정의 안녕과 평온을 지키려는 간절한 바람에서 감리교에 크게 의지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농촌에서 여성이 자주 주도하는 비공식적 예배와 신앙 부흥집회인 '오두막 예배'(cottage religion)가 감리교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sup>8)</sup>

감리교는 위로는 목사의 권위와 아래로는 속인의 적극적 참여와 열정이 결합된 독특한 방식의 종교운동이었다.<sup>9)</sup> 다른 교회와 달리 감리교는 목사 뿐만 아니라 '속인목회자'(lay agency), 즉 남녀 평신도들이 설교와 교회조직과 목회활동에 큰 역할을 하였다. 감리교의 순회설교사는 기존 교회의 신자들만을 설교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잊혀진 작은 부락이나 시골 마을의 사람들까지 찾아내서 새로운 교인들을 만들어 냈다. 일단 개종된 감리교 신자들은 정상적인 예배 참석만이 아니라, 각종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여 신자들간의 상호부조와 보살핌을 나누었다. 감리교도들은 초기에 큰 탄압을 받았다. 1780년경부터 600편 이상의 감리교를 배척하는 문서들이 출간되었다. 고용주들에게 감리교는 근로규칙의 붕괴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감리교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그들의 여자친구의 애정을 빼앗길 위험으로 다가왔고, 아내에 대한 통제 상실을, 이웃들에게는 공동체의 분열과 붕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우려는 감리교도에 대한 가혹한 조직적 탄압으로 이어졌다. 설교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강에 던져지기도 했다. 또 감리교 신자는 군대에 강제 징집되었고, 고용주들로부터 해고당했으며, 숙박업자들에게서 숙박을 거부당하기도 했다.<sup>10)</sup>

그러나 그러한 수난을 겪으면서도 감리교 운동은 결국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이 운동은 비록 부자나 극빈층으로부터 별로 호응을 받지 못했지만, 산업발전의 초기 단계에 점차 수요가 늘어 나고 있었던 소농, 광부, 기술자, 소상인, 소상공인 등의 계층에게는 급속히 파고들었다.<sup>11)</sup> 그들에게는 기성 교단과 같은 제대로 된 조직도 없었으며 주교나 어떤 종류의 계급서열도 없었다. 각 지역의 신자들은 자치적인 신앙공동체를 구성하였다. 특히 혼기를 놓친 노총각들이나, 국교회 교회와 달리 여성들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호감을 느끼는 여성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리교 운동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죽음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 주제는 감리교와 복음주의 운동 전반에 걸쳐서 가장 일관된 주제였던 것이다.<sup>12)</sup>

이러한 성공의 결과, 감리교 신자의 숫자는 1770년에는 고작 25000명에 불과 하던 것이 1800년에는 94000명으로, 그리고 1830년에는 286000으로 불어났다. 물론 등록을 하지 않고도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추종자들은 이 숫자에서 제외된다. 웨슬리 생전에 주로 도시 설교에 집중되었던 감리교 운동은 그 후 서부와 북부의 농촌과 도시주변 지역으로까지 그 전도영역을 확산시켜 나갔다. 그 지역은 국교회 교회나 구비국교회 교회의 세력이 미약한 곳이었다. 웨슬리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식민지에도 많은 교인들을 만들었다. 반면 감리교는 런던과 남부 혹은 남동부 지역에서는 활동이 미약했다.

감리교 운동이 영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다.<sup>13)</sup> 감리교 운동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통한 영원한 구원'이라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 있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 그들의 영혼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자기 존중심을 갖게 해주었고, 그들을 근면하고 검소하며 신중한 사람들로 개화시켰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리 교가 빈곤계층에게 근로윤리를 심어줌으로써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한 것이다. 그리하여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고용주들은 이 운동을 반대하지 않게 되었으며,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보다도 감리교도 노동자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

감리교 운동은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지역에서 산업화의 충격을 완화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전통적인 생활방식으로부터 보다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생활로 어렵게 전환해 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감리교는 그 신도들을 엄격한 도덕적 규율 하에 묶음으로써 거칠고 천한 전통적 생활방식과 비도덕성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이다. 또한 감리교는 신자들의 사회적 저항의식과 독립성을 키웠다. 감리교는 보통 사람들이 지방유지나 교구목사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종교적 열정, 도덕성과 자기 존중의 문제에 관한 한 어떤 신사와도 동등하거나 우월하다는 신념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다. 또한 그 시작에 문명으로부터 거의 고립되어 있었던 영국의 여러 지역을 문명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감리교 운동은 종교적 영역을 초월하여 사회 전반에 광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sup>14)</sup>

무엇보다도 1800년을 전후한 사회적 격동기에 감리교는 혁명의 발발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20세기 초 프랑스 역사가 아레비(Elie Halevy)는 혁명적 프랑스와 안정된 영국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점의 하나는 복음주의적 종교의 존재 유무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sup>15)</sup> 즉, 메소디즘이 영국을 혁명으로부터 구출했다는 것이다. <sup>16)</sup> 더 최근에 톰슨(Edward Thompson)은 복음주의는 급진주의 운동이 탄압을 받고 좌절되는 과정에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즉, 1790년과 1830년 사이에 감리교도들이 대규모로 증가한 사실은 절망에 빠진 인간들의 천 년왕국적 기대감이 확산된 결과라는 것이다. <sup>17)</sup> 감리교 신자들은 현실적 차원의 운동이 실패하자 그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천년왕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했다는 것이다. <sup>18)</sup>

1770년대까지 복음주의적 흐름은 구비국교도들의 여러 종파에 퍼져가고 있었다. 1830년까지 비국교도와 감리교의 연합세력은 국교회의 다수 신도들 속으로 깊게 침투해가고 있었다. 새로운 교파나 종파를 만들려는 의도가 없었던 웨슬리는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표방했으며, 영국 국교회의 기득권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운동을 국교회 테두리 안에서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한 웨슬리의 노선을 추종하는 주류 세력의 태도는 영국의 체제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웨슬리의 보수적 노선을 추종하지 않는 파들이 거기에서 분리해 나왔다 그의 사후 1791년에 독립된 교파로서의 감리교회가 설립되었다. <sup>19)</sup> 결국 그 운동은 그 자체의 생명을 가진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던 것이다. 국교회는 그나마 감리교운동을 국교회 내분로 수용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감리교운동은 웨슬리의 사후에 가장 큰 발전을 이루었다. 1815년경에 영국에는 거의 25만의 감리교도들이 있었고, 미국에는 20만 이상이 있었다.

## IV. 복음주의 운동

복음주의 운동(The Evangelical Movement 혹은 Evangelical Revival)은 19세기 영국의 중·상류 계층의 개혁주의적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운동이다. 여러 측면에서 복음주

의는 빅토리아시대 영국의 이념들을 대변하였다. 18세 기 말에 시작된 이 복음주의 운동은 영국 국교회의 무기력한 종교적 역할과 냉정한 현실적 태도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 물론 초기 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했지만 독립해 나간 감리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상당한 공통점도 있었다. 그러나 두 운동은 차이점도 컸다. 즉, 그 전도대상과 운동방법을 달리 하였던 것이다.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 것은 감리교 운동의 대상이 일반 민중이었던데 반해, 중상류 계층과 국교도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점과, 그 전도와 확산의 방식이 대중집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점진적 침투의 방법이었다는 데 있었다.

1800년까지 국교회 복음주의(Albigian evangelicalism) 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출현하였다. 이 운동은 맑은 영국인들의 눈에 무신론과 사악함의 상징으로 비쳐졌던 프랑스혁명 때문에 가속화되었다. 복음주의자들은 부(富)를 하나의 '축복'(blessing)이며, 현존의 사치스러움을 하느님이 부여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에 중간계급의 불안감을 가라앉혀 주었다. 이 파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보수성향을 보이지만, 영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 복음주의자들은 그들의 조직, 정기간행물을 통해 그들의 대의명분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갔으며, 또 교회 내부와 교회 외부의 적들과도 싸웠다.

그들 복음주의자들이 영국인들의 생활에 도입한 종교적 가치관은 이른바 '새로운 도덕적 경제학'(a new moral economy)이었다. 즉, 진지함(sobriety), 자기통제(self-control), 성적억제(sexual restraint)와 품격(respectability)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러한 생활태도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귀족층과 부유층의 쾌락주의, 프랑스혁명이 몰고온 수평화와 폭력성의 확대를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복음주의자들은 프랑스에서 가톨릭 군주정이 몰락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가톨릭교회 자체가 무너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고무되었다. 성경에서 그 단서를 찾으며 복음주의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훨씬 강력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재림과 예수가 다스리는 천년왕국, 즉 새로운 천국과 지상의 날이 도래할 것을 꿈꾸었던 것이다.<sup>20)</sup>

복음주의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적극적인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악과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선을 실천해 가면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도덕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은 개인이 구원을 받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신이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특히 노예제도를 반대한 것은 그 제도가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들만이 더 쉽게 새로운 영적 체험과 개종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운동의 가장 대표적 인물은 노예해방의 주역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59-1833)와 영국의 공장 개혁과 사회개혁에 앞장선 세 프스베리 경(Lord Shaftesbury)이다. 빅토리아 여왕도 복음주의 이념의 실천에 앞장섰다. 그녀는 모든 의식주의(儀式主義)를 배격하고 내면의 신앙을 중시하는 철저한 '저교회'(Low Church)파였다. 그녀는 도덕주의자였으며, 주일을 엄수하고, 무엇보다도 지도자로서 강한 의무감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여왕의 태도는 상류계급과 중간계급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다수가 그와 같은 태도를 본받게 되었다.

복음주의는 상류계급에게 가난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개혁 운동

에 그들의 삶을 바치도록 영향을 끼쳤다. 복음주의 개혁가 단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 팸회(The Clapham Stct)였다. 그들 대부분은 런던 교 외의 클 팸에 거주하는 은행가나 대지주를 포함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이었다. 그들 중 월버포스와 같이 의회의원이었던 인사들은 뜻을 같이 하는 의원 들끼리 모여서 의회 안에 '성자들'(The Saints)이라는 소그룹을 결성하였다. 또 그들의 가치관을 국교회에 전파시키기 위해서 국교도들의 거주지를 매입하여 복 음주의파 성직자들을 그 곳에 거주시키기도 하였다.

셰프스베리 경은 지주출신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로 복음주의 신앙의 세 려를 받고 나서 사회개혁 활동에 그의 전생애를 바쳤다. 그는 공장개혁운동의 지 도자가 되어 오토동안 투쟁했으며, 광산에서의 여성과 아동 고용을 금지시켰다. 또 빈곤층 아동들을 위한 빈민학교도 설립하였다.

초창기에는 귀족계급에서도 동조자들이 있었지만, 복음주의를 가장 많이 지지 한 계층은 중간계급이었다. 신앙 생활의 핵심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며, 그러한 믿음을 갖는 신앙인은 근면 · 검소 · 진지함 · 자기희생의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가치관은 중간계급에게서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복음주의자들이 전파 한 '도덕적 기업가 정신'은 반국물법동맹과 같은 압력단체에서 되살아 났으며, 중 간계급 역시 가정에서 기도를 통해 복음주의를 실천하였다. 그 결과, 이 운동은 영국의 상류계급과 중간계급의 생활방식을 점진적이지만 거의 완전하게 바꿔 놓 았다. <sup>21)</sup>

복음주의 활동의 절정기는 월버포스가 노예무역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 켰던 1795-1808년 사이의 기간이었다. 당시 그들은 노예문제 만이 아니라, 해외 선교단과 성서 협회의 창설, 주일 일수의 실천, 결투 금지, 감옥의 개선 등에 앞장 섰다. 그들은 그러한 사회개혁을 통해 영국에 새로운 영적 변화를 일으키고, 카 톨릭 교회를 영국에서 몰아내고, 궁극적으로는 지상의 모든 국가에 그들의 새로 운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겠다는, 너무나 야심 찬 목표를 가졌던 것이다. <sup>22)</sup>

복음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영혼과 구원의 문제에 과도하게 집 착해 있으며, 빈민들의 즐거움을 억누르는 데는 열성적이지만 부자들의 쾌락추구 는 눈감아주는 "개신교의 협잡꾼"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들은 복음주의자들이 빈민들에게 '잠음소리 내지 말고 죽어라'고 가르친다고 공격하였다. 실제로 복음 주의자들은 국교회 안에서 반대파에 둘러싸인 소수파로서, 중상류계층 밖의 일반 대중들에게서는 결코 큰 지지를 얻지 못했다. <sup>23)</sup>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복음주의가 영국의 사회개혁의 이념적 기반 이 되고 중 상류층의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미친 지대한 영향은 누구도 부 인할 수 없다. 그 밖 에도 복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1867년 동부 런던에 수많은 집없는 아이들을 위한 수용소 들(Barnardo's Homes)을 건립한 사실이나, 1870년 구세군(The Salvation Army)을 창설한 사실이 두드러 진다. 동부 런던에서 복 음주치 선교사로 30년간 봉사했던 윌리엄 부드(William Booth)가 시작한 구세군 운동을 빈민구호활동과 직업교육센터 운영으로까지 그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영국 역사상 빈곤과 고통에 신음하는 소외계층을 돕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 V. 비국교도의 개혁정치

19세기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교는 바야흐로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 였다. 그 점에

서 특히 비국교도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그들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은 19세기의 대표적 정치가 글래드스톤(William E. Gladstone)이 그들을 "영국 자유주의의 중추"라고 불렀을 정도로 높았다. 그들은 자유당과 긴밀하게 연합하여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사실 19세기 초에 비국교도의 활동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휴면기(休眠期)를 거치고 있었다 그것은 프랑스와의 전쟁을 치루는 국가 위기시에 국익을 해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힘을 복음주의 전도운동에 쏟아붓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분열을 겪고 있던 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제도적 장벽이 그들의 정치활동을 가로막고 있었던 데 있었다. 아직은 정치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였다. 그러므로 1820년대의 하원에는 교직 두 명의 비국교도만이 진출해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전(前)반기 동안에 비국교도의 정치활동은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비국교도'(New Dissent - 특히 감리교 The Methodists, 조합교회 Congregationalists, 침례교 Baptists의 새 분파)의 세력신장 때문이었다. 1851년의 종교센서스에 따르면 비국교도(그들은 Dissent라는 호칭을 1840년 대부터 Nonconformists로 스스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의 숫자가 거의 5백만 명에 달했다(당시 인구는 2000-2100만 사이). 그것은 18세기 말의 2백만(당시 인구 1000만 가량)에 비하면 대단한 성장이었다. 그 숫자는 당시 국교도의 숫자와 거의 맞먹는 것이었다. 지역적으로 비국교도들의 증가는 북부, 중부의 신흥 산업 도시들과 웨일즈, 잉글랜드 서부와 이스트 앵글리아의 농촌에 집중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거의 중간계급과 숙련공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반면 산업 프롤레타리아나 극빈층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sup>24)</sup> 그들은 여러 분파로 갈라져 있었지만, 가문과 토지소유의 기득권을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가치관과 사회질서에 반발하는 점에서는 일치된 태도를 보였다.

비국교도 신자들의 세력이 급속히 커가면서 당연히 그들의 사회 참여의 기회와 활동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1820년대에 최초의 정치적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결집된 힘을 과시하였다. 마침내 오랜동안 비국교도들의 사회활동에 장애가 되어 왔던 심사령을 그들의 힘으로 폐지시켰다. (1928년) 이를 계기로 비국교도들은 '새로운 적극적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1932년의 선거법 개정은 그들의 정치의식을 보다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비국교도들이 정치세력으로 크게 성장했던 곳은 중앙의 의회보다는 지방의 정치무대가 피었다. 1835년에 통과된 지방자치법(The Municipal Corporation Act)으로 그들은 수많은 도시와 읍의 지방의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수 있었다. 특히 맨체스터, 리버풀, 리체스터, 버밍엄, 콜체스터는 막강한 힘을 가진 비국교도 상업 엘리트가 도시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비국교도의 대도시"(the metropolis of Dissent)가 되었다.<sup>25)</sup>

심사령 폐지를 계기로 비국교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법조문에 불과했던 종교적 평등을 실질적 평등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져 온 종교적 교육적 불평등을 본격적으로 해소하려고 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교회세, 출생, 결혼, 사망 등의 문제에 관한 국교회의 통제, 옥스포드와 케임 브리지 대학의 국교도 독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초기에는 현실정치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이때 런던의 하층 중간계급 출신인 미알(Edward Miall)<sup>26)</sup>이 그들의 강력한 대변자로 등장하였다 그는 앞장서서 운동의 기금 마련과 신문발간을 위한 전국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한 노력은 급기야 국교회 폐지운동을 촉발시켰고, 정치적 평등의 문제로까지 비화되어



선거권 확대와 의회개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미알은 노동계급과의 연대도 모색하였다. 그는 차아티스트들과의 협력을 통해 비국교도들이 더욱 유산계급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중간계급과 노동계급간의 정치적, 종교적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40년대의 국교주의 폐지운동이 구호에 그치고 말자, 비국교도들은 그보다 더 시급한 현안인 교육문제에 매달렸다. 국교회 계열의 학교에만 국가가 지원을 하는 현실에서 비국교도들은 국가가 통제를 벗어난 종교적 색채가 배제된 무상 교육을 원했다. 결정적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입장차이로 글래드스톤과 결별한 그들은 1869년 챔벌린을 앞세워 전국교육동맹(National Education League)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1870년에 통과된 교육법안은 그들이 원하는 교육개혁의 이상 전국적 실시, 종교적 영향 배제, 무상(無償) 교육 - 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1853년에 국교회폐지와 국가지원금지라는 단일 목적을 표방하는 거대 압력단체인 자유협회(The Liberation Society)가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1850년대와 60년대에 비국교도운동의 중심점이 되었으며 비국교도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했다.<sup>27)</sup> 1867년의 제2차 선거법개정으로 비국교도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커졌다 마침내 비국교도들과 오랫동안 제휴관계를 유지해 온 글래드스톤이 교화세폐지 법안을 보수당정부 하에서 통과시켰다. 그것은 비국교도의 정치적 승리이자, 사회개혁을 추구한 그들의 이상의 승리였다.<sup>28)</sup>

1867년 이후 영국의 의회는 체제 개혁을 추구하는 비국교도 의원들이 대폭 늘어났다. 1874-1880, 1880-1885 기간에 의회의원 중 비국교도가 그 70%를 점했으며, 특히 "비국교도-자본가"<sup>29)</sup> 출신이 많았다. 바로 이 시기가 비국교도들이 영국의 정치의 중추세력으로 절정기를 누렸던 시대이다.<sup>30)</sup> 그러나 비국교도 출신의 정치 엘리트들은 노동자들의 빈곤과 실업의 문제를 의회에서 해결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 이들 자본가 비국교도들이 주도하는 의회와 국가정책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층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등한히 하였다. 이들 부유한 비국교도가 추구한 자유주의의 한계는 영국에 새로운 자유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 VI. 윤리운동

바록 비국교도 정치가들이 빈곤과 실업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혹은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교계 전체가 그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사회주의(Christian Socialism)와 윤리운동(The Ethical Movement)의 물이었다. 19세기 중반의 그리스도교 사회주의자들은 교회가 사회개혁과 봉사활동을 통해 산업사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삶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노동운동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빈민가 청결문제, 협동조합운동, 성인학교운동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킹슬리(Charles Kingsley)와 모리스(F.D. Maurice)는 1850년대에 수많은 팸플릿을 통해 상류계층과 중간계층의 인사들에게 사회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산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회가 직접 나서서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여 더 큰 효과를 얻었던 것은 윤리운동이었다.<sup>31)</sup> 이 운동이 역점을 두었던 사업은 교회의 일요학교에서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적 개조'를 추구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계급간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온건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새로

운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건전한 사회질서를 추구하려고 하였다.

윤리운동은 빅토리아 시대에 과학주의가 확산되면서 대중이 성서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교의 도덕적 교훈을 지키기 위해 출발하였다.<sup>32)</sup> 대표적인 단체로는 1880년대와 1890년대의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출현한 「런던 윤리협회」(London Ethical Society), 「사우스 플레이스 윤리협회」(South Place Ethical Society), 「서런던 윤리협회」(West London Ethical Society) 등이 있다. 이 단체들은 윤리적 가르침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의 사회 문제에 관여하면서 진보적 이념의 발상지 역할도 하였다.<sup>33)</sup> 윤리협회는 개인의 도덕적 행위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영역으로까지 활동범위를 확대시켜 나갔다. 이러한 발전은 윤리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관계에서도 지배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그린(T.H. Green)의 '유기체적 사회관'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sup>34)</sup> 개인의 선은 사회의 선에 의존한다는 그린의 사고는 당시 개혁가들에게 널리 공감을 얻고 있었다.<sup>35)</sup>

그러하여 윤리운동가들은 '당대의 사회적 중대현안들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밝히고 국민들의 경제적 무능을 해소하고 빈민굴과 '노동착취'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sup>36)</sup>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는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져서는 안되고, 개인의 미덕도 사회의 완전성과 독립해서 추구되는 무엇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활동도 단지 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윤리운동의 사회개혁은 어떤 방법론을 지향하였는가? 윤리단체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공공선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주의적 노선을 배격하였다 대신 개인의 발전과 개인의 이니셔티브를 존중하는 전통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 19세기의 부르주아 편향적인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온건 노선을 지향하였다. 윤리운동가들은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같은 어떤 외부적 작용에 의해서 영국의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려는 시도에 관해 깊은 의구심'<sup>37)</sup>을 가졌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도덕적 원리에 복종함으로써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변화"를 통해서 계급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의 창출이었다.<sup>38)</sup>

도덕적 책임감과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함께 표방하는 보다 급진적 성향의 윤리적 단체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체는 「사우스 플레이스 윤리협회」였다. 1793년의 「사랑하는 형제들」(Loving Brothers)이라는 모임에서 출발한 이 단체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좌파 지식인들과 다양한 사회 개혁가들이 집결한 중요 사회운동 단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단체의 핵심적 인물의 하나가 홉슨(J. A. Hobson)이었다.<sup>39)</sup> 이 단체는 「런던 윤리협회」와 달리 개인의 도덕적 차원의 발전보다는 사회적·정치적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 단체가 추구했던 중심 목표는 "지식의 진보와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복지증진"<sup>40)</sup>이었다 즉, "진보는 그것이 항구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물질적, 지적, 도덕적, 예술적 그리고 사회적 <제영역>에서 폭넓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sup>41)</sup>는 것이었다.

이 협회는 매 일요일 집회를 가지며 이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확산시켰다. 이 집회에서는 종교적 토론에서부터 각계 각층의 노동자들이 자신이 속한 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회개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898년초 「사우스 플레이스 윤리협회」의 개혁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주간(週刊) The Ethical World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sup>42)</sup> 윤리운동가들은 이 잡지를 통해서 '윤리적 민주주의'의 이상을

전파함으로써 새로운 개혁 정당을 지향하였다. <sup>43)</sup>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윤리 운동은 노동계급과 중간계급 간에 이질감을 해소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하나의 중요한 가교(架橋) 역할을 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은 훗날 정치무대에서 중간계급과 노동자들이 제휴하는데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었으며, 노동당이 사회주의 정당이 아닌 진보적 정당을 지향하도록 영향을 끼쳤다.

## VII.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근대의 영국은 종교가 많은 역할을 한 시대였다. 이 시대 사람들은 영국의 위대함 - 번영, 사회적 안정, 정치적 자유, 제국 - 이 그리스도교(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다<sup>44)</sup> 그러한 역할은 영국의 그리스도교가 개혁주의적 종교로의 끊임없는 변신을 모색함으로써 가능 했다고 여겨진다.

영국의 종교가 사회적 조화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종교적 통일성이 다 원성으로 전환해 가면서 갈등과 반목이 초래되었다. 프로테스탄트는 가톨릭을, 국교도는 비국교도를, 복음주의자들은 고교회파 신도들을, 그리스도 교인은 비교 인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파들 간의 다툼보다는 보다 큰 사회적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산업화의 지속적 확대와 대도시의 성장, 그리고 계급분열의 심화 등이 그것이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보다 사회변화에 맞는 종교가 되었다.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는 도시 노동자들을 교회에 오도록 하는데 대부분 실패하였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중간계급으로부터도 지지 기반을 잃게 되었다.

오늘날 순수 종교적 차원에서의 그리스도교의 변화와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영국인의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방식, 개혁적 정치문화의 성립에 기여한 근 대 영국 그리스도교의 역사적 역할과 영향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종교의 개혁적 역할과 체제안정을 위한 노력과 국가의 발전은 중요한 함수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우라 종교계에 시사(示峻)하는 바가 클 것이다.

---

## 각 주

- 1) James Obelkevich, "Religion" in F.M.L. Thompson ed., The Cambridge Social History of Britain 1750-1950(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311.
- 2) 영국의 두 번째 국교회인 스코틀랜드 국교회(Church of Scotland)는 더 나은 입장에 있었다. 국가로부터 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덜 엘리트적이었다. 따라서 1750년경에 영국에 진정한 국민적 교회가 있었다면 그것은 스코틀랜드 국교회였다. (Ibid., pp. 314-315)
- 3) Durham의 주교는 연간 6000파운드의 수입을 올렸던 반면 Bristol의 주교는 450파운드 소득밖에 올리지 못했다. 1810년에 교구 설직자들의 거의 1/4이 년 100파운드 이하의 저소득층이 었다.
- 4) Obelkevich, op. cit., p. 313.
- 5) M.R. Watts, The Dissentes, vol. 1 (Oxford, 1978), p. 270.
- 6) C.P. Hill, British Economic and Social History 1700-1982, Fifth(edn.)(Edward Arnold,.

- 1986), p. 214.
- 7) Obelkevich, op. cit., p.323.
- 8) Obelkevich, op. cit., p.327.
- 9) Ibid., p. 324.
- 10) J. D. Walsh, "Methodism and the Mob in Eighteenth Century", in G. J. Cuming and D. Baker, (eds.), *Popular Belief and Practice* (Studies in Church History 8, Cambridge, 1972), pp. 216-14
- 11) 빈곤층은 교회에 출석한 경우가 드물었고 그리스도교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리교도 혹은 비국교도가 되는 경우가 적었다. (Obelkevich, op. cit., p 320)
- 12) A. D. Gilbert, *Religion and Society in Industrial England* (1976), pp. 59-68.
- 13) Obelkevich, op. cit., p.324.
- 14) Ibid., p. 321.
- 15) Edward Royle, *Modern Britain, A Social History 1750-1985* (Edward Arnold, 1989), p. 299.
- 16) 그러나 1800년 이전에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숫자의 감리교도들이 없었으며, 1800년 이후에 감리교 목사들은 급진주의자들을 교단에서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배격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서 감리교의 그러한 개혁적 역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Obelkevich, op. cit., p. 325.)
- 17) E. P. Thompson,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Vintage Books, 1966), Ch. 11.
- 18) 18세기 영국의 비국교도와 정치와의 관계에 관한 여러 해석은 James E. Bradley, *Religion, Reuotution, and English Radicalism: Nonconformity In Eighteenth Century Politics and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Ch. 1 참고
- 19) 그러므로 복음주의를 정치적 보수주의와 바로 동일시하는 견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G.I.T. Machin, *Politics and the Churches in Great Britain 1832 to 1868* (Oxford: Clarendon Press, 1977), p. 14.]
- 20) D. N. Hempton, "Evangelicalism and Eschatology",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31(1980), pp. 182-6.
- 21) Hill, op. cit., p. 216.
- 22) Ibid., p. 312.
- 23) Obelkevich, op. cit., p.323.
- 24) K. S. Inghis, *Church and the Working Class in Victorian England* (1963).
- 25) Asa Briggs, *Victorian Cities* (Pelican, 1968).
- 26) 대학강사, 작가, 언론인, 1852-1857, 1869-1874 하원의원.
- 27) 그 밖에도 그리스도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대표적 단체는 금주운동단체인 United Kingdom Alliance와 Education League 였다.
- 28) Paul Adelman, *Victorian Radicalism, The middle-class experience, 1830-1914* (Longman, 1986), p. 77.
- 29) John Vincent, *The Formation of the Liberal Party, 1857-68* (London, 1966), pp. 28-30.
- 30) T. W. Heyck, *The Dimensions of British Radicalism*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4), p. 8.

31) 윤리운동에 관해서는 G. Spiller, *The Ethical Movement in Great Britain: A Documentary History*(London, 1934); J. A. Hobson, *Confessions of an Economic Heretic*(London, 1938); S. K. Ratcliff, *The Story of South Place*(London, 1955); I. D. MacKillop, *The British Ethical Societies*(Cambridge, 1986) 등을 참고.

32) Peter Weiler, *The New Liberalism, Liberal Social Theory in Great Britain 1889-1914*(Garland, 1982), p. 79.

33)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윤리운동이 영국에 자리잡은 것은 108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 후에 「런던 윤리협회」라고 알려진 최초의 윤리운동단체는 James Muirhead, Bernard Bosanquet, James Bonar, J. S. Mackenzie 등이 미국의 윤리운동단체의 지도자인 Stanton Coit를 만난 1886년에 결성되었다. [G. Spiller, *The Ethical Movement in Great Britain, A Documentary History*(London, 1934) pp. 1-2.]

34) J. H. Muirhead, *Reflection*(London, 1942), p. 76 in Weiler, op. cit., p. 79.

35) Bernard Porter, *Critics of Empire*(Macmillan, 1968), p. 160.

36) Weiler, op. cit., pp. 79-80. 이 내용은 *Manifesto of the First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Ethical Union*(1896), p. 2에 명시되어 있다.

37) J. H. Muirhead, "Sketch for the Volume", in Spiller, op. cit., p. 1.

38) 그들이 추구했던 목적은 그들이 집회에서 불렀던 다음과 같은 노래의 제목에서 잘 드러난다. "Duty is the Aim of Life", *The Consolation of Good Works*, *The Moral Ideal*, *Defend the Poor and Desolate*, *Are We not Brothers All?*, *Nature, Man's The New Order*. 「런던 윤리협회」의 첫 보고서도 "국가의 복지를 결정하는 요소로서의 인격의 최상의 중요성을 믿으면서 모든 교육과 사회 개혁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그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시민들의 훌륭한 인격의 발전을 촉진시키는가 혹은 촉진시키지 않는가?"라고 기술하고 있다. (London Ethical Society, *First Annual Report*, p. 3.)

39) 홉슨은 40년간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매주 강연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였다. 홉슨 외에도 Gibert Murray, Herbert Burrows, L. T. Hobhouse, Bertrand Russell, John Robertson, Graham Wallas, Norman Angell, H. Bradlaugh Bonner, G.L. Dickinson 등 당대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상당수 거기에 참여했다.

40) *Report of the Committee of the South Place Ethical Society*(1896) in Porter, op. cit., p. 161.

41) *South Place Magazine*, vol. 1(1896), p. 103 in Porter, op. cit.

42) 그 필진(筆陣)에는 James Bryce, William Clarke, S. G. Hobson, H. M. Hyndman, George Bernard Shaw 를 위시하여 Edward Bernstein, Edward Carpenter, Mrs. Leonard Courtney, G. P. Gooch, Bruce Glasier, Keir Hardie, H. W. Massingham, Olive Schreiner, Herbert Spencer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43) Stanton Coit to MacDonald, 2 Apr. 1898(MacDonald Papers) In Porter, op. cit., p. 163n.

44) Obelkevich, op. cit., p. 328